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공폭포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동 (당첨 후합동I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unashy.co.kr 0801-320-7700



KIA 윤석민 11승



SK 김광현 11승



한화 류현진 10승

불 붙은 다승왕 3파전

KIA 에이스 윤석민이 52일 만에 다승 1위에 복귀하면서 다승왕 경쟁에 불이 붙었다.

윤석민은 지난 2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경기에서 화끈한 타선의 지원속에 7-1로 팀 승리를 이끌며 11승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 5월31일 두산과의 잠실전에서 7승째를 올리며 롯데 손민환과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던 윤석민은 50여일 만에 다승 1위 자리에 복귀해 SK 김광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재 다승왕 경쟁은 11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민·김광현과, 10승으로 그 뒤를 쫓고 있는 한화 류현진 등 '영건 3인방'이 주도하고 있다.

김광현·류현진 좌완 쌍두마차 사이에서 우완 투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윤석민은 올림픽 대표팀 낙방의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두 좌완 투수와 엇갈려 묘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윤석민은 11승4패 평균자책점 2.47로 다승 부문 1위와 평균자책점 2위에 올라 있다. 다승 공동 1위를 달

윤석민-복귀 후 3승 질주

김광현-2경기 연속 부진

류현진-최근 5연승 쾌투

리고 있는 김광현은 11승 3패, 평균자책점은 2.85(7위)이다. 10승 5패로 1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3.33(11위).

영건 3인방은 모두 시즌 중반 부상으로 2군에 다녀왔다. 2주가량 호흡을 가다듬은 후 1군에 재합류한 이들은 이후 팀 내 에이스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다승왕을 향해 재결집을 견고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활약이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류현진이다. 5경기에서 38과 3분의2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1.16의 완벽한 투구로 4승을 챙겼다. 김광현은 최근 5경기에서 3.41의 평균자책점으로 29이닝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5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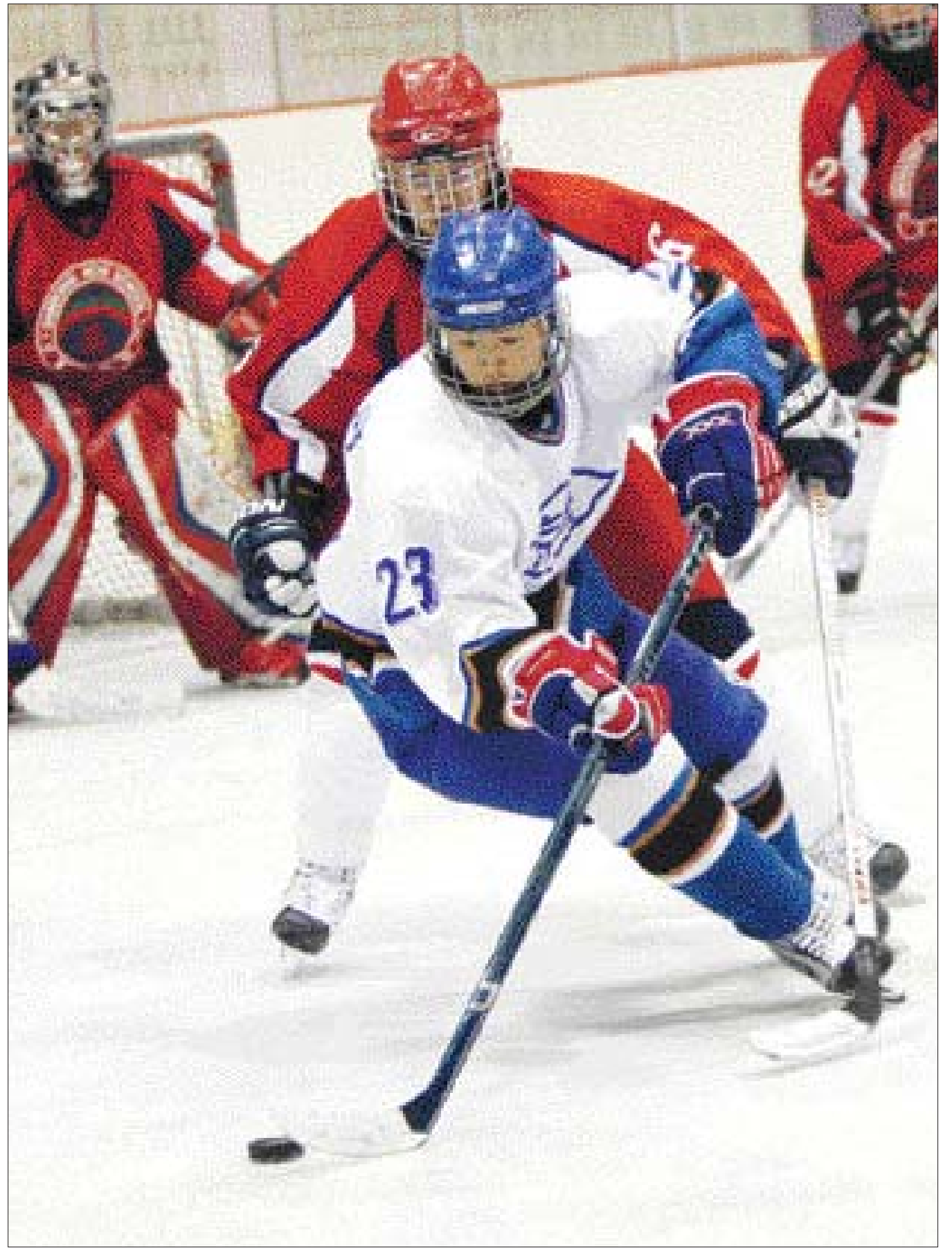
승 행진을 하며 다승 부문 독주를 하던 김광현은 지난 15일 두산전에서 2와 3분의1이닝동안 5실점 하며 못매를 맞는 등 2경기 연속 승을 챙기지 못했다.

6월15일 어깨 근육이 뭉쳐 2주가량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윤석민은 지난 2일 복귀 후 4차례 등판에서 3승을 거머쥐며 자신의 공백을 만회하고 있다. 최근 5경기의 평균자책점은 1.93.

지난 시즌 3.78의 평균자책점과 104개의 탈삼진을 뽑고도 18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돼 최다패배의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민은 올해 다승왕으로의 대반전을 꿈꾸 있다.

하지만 대표팀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다승왕으로 달래고자 하는 팬들의 예타는 심정과 달리 정작 본인인 답답한 모습이다. 22일 경기가 끝난 후 윤석민에게 다승왕에 대해 묻자 "큰 욕심이 없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라는 KIA 마운드 기동 윤석민에게 다승왕을 향한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여름 고교생 빙상 투혼 23일 의정부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28회 유한철배 전국아이스하키대회' 경기고와 신송고의 경기에서 경기고 조현국(앞) 선수가 신송고 문전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경기고가 8-2로 승리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신지애=컴퓨터 샷' 입증

'멀리 치면서 정확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신지애(20·하이마트)의 컴퓨터 샷이 통계상으로도 검증됐다.

23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따르면 공식기록업체 C&PS와 함께 2008 시즌 상반기 대회 주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히팅능력지수에서 신지애가 1위로 나타났다.

히팅능력지수는 드라이브샷과 아이언샷에 대한 비거리, 페어웨이 안착률, 그린 적중률 순위를 합산해 지수값을 도출한 것으로

차지했다. 신지애는 또 평균퍼트에서도 70.39타, 평균 퍼트수 25.39개로 각각 1위에 올라 히팅 능력 뿐 아니라 그린 위에서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히팅능력지수뿐만 보면 드라이브샷 비거리 1위 이혜인(23·푸마)이 27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지만 평균 퍼트수는 29.91개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안선주(21·하이마트)는 그린 적중률(3위)과 드라이브샷 비거리(3위)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에서 39위로 밀려 히팅능력지수는 4위였다.

KLPGA 주요 기록 분석

로 지수값이 낮을 수록 히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기에 4승을 수확한 신지애는 페어웨이 안착률 10위(71.42%), 그린 적중률 1위(80.30%), 드라이브샷 비거리 3위(255.55야드)에 올라 히팅능력지수 1위(14점)를

전남 도내 골프장 '클린' (CLEAN)

전남도는 올 상반기 도내 골프장 17곳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한 곳도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에서 각각 채취한 잔디와 토양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했으며 이들 시료에서 '벤푸라카브'(Benfuracarb) 등 고독성 농약 14개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맹·고독성 농약검사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실시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는 저독성 농약이 일부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검사에서는 저독성인 일반 농약 검출량도 매우 낮아졌다.

이같은 결과는 병충해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농약을 적절히 사용하고 내병해성 잔디식재 등을 통한 농약 사용량을 줄여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하도록 골프장에 대한 지도·권고를 강화하고 임주들도 농약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맹독성 농약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맹독성 농약' 한 곳도 없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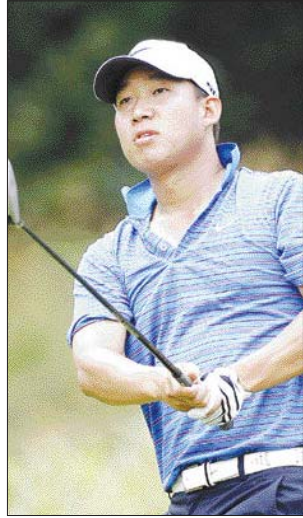
고 말했다. 전남지역 골프장은 4개월 무휴개장으로 휴장 이용객 수가 지난해에는 5천명을 넘어서는 등 골프 이용객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골프장협회 자료분석 결과 전남도내 골프장 휴장 이용객 수는 지난 2006년 4천32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5천898명으로 18% 증가했다.

이는 제주도 2천657명, 경남 4천938명, 충북 4천598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내셔널 정상' 도전

앤서니 김, 24일 캐나다오픈 출전



'포스트 타이거'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는 재미동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생애 첫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24일(한국시간)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의 글렌에비골프장(파71·7천273야드)에서 막을 올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캐나다오픈에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앤서니 김이다.

시즌을 접은 타이거 우즈(미국)는 물론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오픈을 마친 상위권 선수들이 대부분 불참해 앤서니가 가장 상급랭킹(5위)이 높다.

세계랭킹에서는 타이틀 방어에 나서 출사표를 던진 짐 퓨릭(미국·10위)에 밀리지만 14위 앤서니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두 명의 세계 '톱 20'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도 시즌 2승을 올린 앤서니를 주저없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았다.

브리티시오픈에서 5위에 오른 여세를 몰아 사상 첫 대회 3연패를 바라보고 있는 퓨릭에 맞설 선수로 앤서니를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 출신인 마이크 위어와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이 퓨릭, 앤서니와 함께 우승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 박진(31·던롭스릭스)도 출전한다.

캐나다오픈은 1904년에 창설돼 브리티시오픈, US오픈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대회이다.

김두현 주전 '청신호'

영 프리시즌서 득점포 가동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김두현(26·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이하 웨스트브롬·사진)이 프리시즌 매치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주전 경쟁에 청신호를 쳤다.

미드필더 김두현은 23일 영국 슈루즈베리의 프로스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리그2(4부리그) 소속 슈루즈베리 타운과 프리시즌 매치에서 0-2로 뒤지던 후반 29분 만회골을 터뜨려 2-2 무승부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팀이 독일 전지훈련 중 가진 두 차례 친선경기에서 모두 출전했던 김두현은 영국에서 시작한 프리시즌 매치에서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며 골 맛까지 봐 새 시즌 주전 확보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지난 17일 보루시아 MG(1-2 패)전에서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됐던 김두현은 20일 FC코를른(1-4 패)과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후반 30분까지 뛰었고, 이날은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출전 시간도 점점 늘려나갔다.

웨스트브롬은 프리미어리그 팀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오히려 후반 들어 4분과 20분 상대 공격수 그랜트 홀트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골려졌다.

하지만 후반 29분 김두현이 골문과 23m 거리에서 대포알 중거리 리슥을 터뜨려 분위기를 바꿨다. 김두현의 발끝을 떠난 공은 상대 골키퍼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대로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웨스트브롬은 9분 뒤 제임스 모리슨의 동점골이 터져 힘겹게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다.